



구술자료 상세목록 (구술개요 포함)

사업명	<‘옛)동양제철화학과 학익동, 용현동 일대의 변화’>				
사업개요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용현동 일대는 염전-공업지대-주거지대로의 변화하는 큰 변화가 진행된 지역임. 이 중 1960-1990년대에 거주 및 근무한 동양제철화학 노동자 및 관리자, 인근 공장의 관계자, 지역주민, 소상공인, 관련 지역사회 인물 등으로부터 인근 지역의 변화와 발전에 관한 증언을 듣고 기록하고자 함.				
구술자명	이옥순	성 별	여성	출생연도	1942년
면담자	표기자	소 속	미추홀시민기록단	검독자	
면담장소	학산문화원 동아리실		면담지원	박인옥	
면담 일시	2025 년 9 월 13일		회 차	2	시 간 1시간 20분
자료번호					
구술 개요	2차 면담에서는 1차 면담에서 좀 더 보완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하였다. 어릴 적 피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고향인 강원도 평창에서 인천으로 이사 오게 된 계기. 생계를 위해 동양화학에 일용직으로 입사해서 화이트카본 포장일 작업 과정, 한국농약. 방직공장과 달리 동양화학에서는 장기 근속을 하게 된 배경, 그 당시 여성노동자에 대한 인식, 일년 내내 온종일 교대근무하며 일하느라 가족에게는 엄마의 부재로 인한 자녀들의 심경, 작업장 환경과 분위기, 동양화학과 주변마을과의 관계 등에 관한 이야기.				
주요 색인어	6.25전쟁. 청구화학(학익동). 한국농약. 한일방직. 70년대 여성노동자. T.T제품. M(노란가루). 화이트카본. 동양화학. 75년도 동양화학 뒷마을. 가족찬스 입사.				
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 파일(비공개)
1. 시작 멘트 : 일시 및 연구진 소개.				00:00:00	
- 인사				~ 00:00:20	
2. 개인 신상				00:0:21~	
- 한국 전쟁 시 피난 시절 - 고향 평창에서 집안 어른신들 소개로 배우자를 만나 결혼.				00:10:47	
3. 인천으로 이사오게 된 배경과 처음 거주지와 일 시작				00:10:48	
- 자녀 교육 위해 인천으로 이사 - 남편 청구화학에서 일함 - 도라지까기. 뜨개질. 한국농약. 한일방직 등에서 일함				~00:19:29	
4. 동양화학에 일용직으로 들어가서 맡게 된 일과 작업 과정 -화이트카본 가루가 라인에 실려오면 가루를 담고 건조시키고 실어 나르는 일련의 작업 과정				00:19:30 ~00:26:38	



5. 여성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00:26:39		
- 남자들도 버티기 힘든 일을 옆에서 지켜보는 남자 직원들은 대단하다며 놀라워 함.	~00:29:09		
6. 동양화학에 오래 다니게 된 배경	00:29:10		
- 남편의 생활력 부족으로 대신 생계를 위해서 일해야만 했음.	~00:31:03		
7. 가족과 삶	00:31:04~		
- 교대 근무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야 함으로 그로 인한 가정내에서 엄마의 부재로 인한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	00:34:53		
8.작업장 분위기와 환경	00:34:54~		
- 동료들 간 즐겁게 지냄 - 한여름에도 냉방 장치 없이 마스크속에 가재 넣고 비닐 옷 입고 작업	00:40:44		
9.가족과 삶	00;40:45~		
-엄마의 부재로 인한 딸의 심경을 이해하고 가장 역할을 해야만 했던 엄마의 심경을 이야기 하심.	00:47:08		
10.동양화학과 마을과의 관계	00;47:09~		
- 75년도 판자촌 풍경의 학익동 마을 - 연탄 때던 시절 - 동양화학 뒷동네 우물을 쓰던 시절 - 옥시크린 물먹는하마 등 동양화학에서 제공 된 선물	00:55:06		
11.옛 시절 여성 노동과 한국 사회	00:55:07~		
- 여성으로서 일해서 일가를 일으킨 점에 대한 땀땀함. - 동양화학에서 힘든 노동으로 골병 들었던 생각을 하게 됨.	1:02:29		
12.퇴직 후 생활	1:02:30~1		
- 여성으로 일한 자부심이 큼 - 후손에겐, 너무 고생하며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	:18:00		
공개여부	☐ 전체 공개 ☐ 전체 비공개 ☒ 부분 공개		
활용동의	☒ 동의함 ☐ 동의 안 함 ☐ 조건부 동의		
특이사항			